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3 0102

Vol. 97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연중기획_ 암! 함께 이겨내요_ 암시리즈 9 자궁난소암 | Hello 닥터_ 산부인과 황성욱 교수 Medical point_ 난소암 & 자궁경부암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릴 때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또 비슷한 우리들, 앞뒤로 보따리 하나씩 메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앞보따리를 뒤적거리려 보지만, 이렇게 보면 장점이 저렇게 보면 단점이고, 저렇게 보면 단점이 이렇게 보면 장점이다. 결국 장단점이 따로 없지만, 어차피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제각각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보니,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희미하고 탐탁잖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못생겼다고 흉보며 사는 세상이 항상 시끄러운 것도 당연하다.

가끔 누군가 내게 행한 일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며칠 동안 가슴앓이하고 잠 못 자고 하다가도 문득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꼭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동정심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그 대상이 나였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의 용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까짓거, 그냥 용서해 버리자’ 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남’ 의 마음을 ‘나’ 의 마음으로 헤아릴 때 생기는 기적이다.

(장영희/샘터사_ 내 생애 단 한 번 중에서)



08



22



28

인하대병원

Jan
+
Feb 2013 Vol.97

건강 한걸음

- 04 **신년사** 의료혁신을 통한 환자행복
- 06 **INHA 에세이** 손

연중기획_임_함께 이겨내요_임시리즈 9 자궁난소암

- 08 **Hello 닥터** 산부인과 황성욱 교수
- 11 **Medical point** 난소암 & 자궁경부암

- 14 **Health touch** 심각한 후보자 당뇨병 전 단계
- 16 압박골절 방지하면 꼬부랑 허리가 될 수도
- 18 침샘, 평생 마르지 않는 입안의 웅달샘

사랑 두걸음

- 20 **Special people** 개그맨 정찬우
- 22 **어디까지 가봤니** 전북 무주 덕유산
- 26 **모르면 지는거다** 간암, 위암 치료제 본인부담금 5%!!

나눔 세걸음

- 28 **Today INHA** 나는 한 살이다.....
- 30 **인하 심포** 매일 붉은 톨립 꽃을 마주하다
- 32 **Global INHA** 행운의 여신이 내게 웃어주다
- 34 **특독 약물상담** 일본뇌염 예방 접종, 생백신과 사백신 교차접종 NO!!
- 35 **동문 탐방** 상우내과의원

INHA NEWS

-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38 **Info desk**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검진' 안내
- 39 무료공개강좌 + 홍보영상 + 파랑새 소식



표지_장욱진 作 - 까지와 호랑이 | 1986년작

의료혁신을 통한 환자행복

인하가족 여러분!
2013년 계사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인하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더 나은 미래의 꿈을 위한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2020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였고,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유치하여 새로운 병원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병원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예고됩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의료수요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간호등급제 변경, DRG시행, 초음파검사 급여화 등 정부의 의료정책은 더욱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서울의 대형병원 환자집중으로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고 지역병원의 홍보강화 등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비전 2020발전계획을 추진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서, 대내외 어려운 경영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교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체질개선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2014년까지 우리 병원 1차 중기계획 기본방향은 조직체질개선입니다. 우리병원 교직원은 목표가 정해지고 마음만 먹으면 땀 뚝 뚝 뚝 뚝 만드시 이루어내는 열정의 DNA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것은 더욱 발전시키되, 이기주의와 매너리즘 등 좋지 않은 것은 과감히 단절해야 합니다.

봉급 생활자로서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말고 2단계 위의 직급 위치에서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올바른 행동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새롭게 정립한 조직의 핵심가치인 고객신뢰, 첨단기술, 내부화합을 체질화하고 생활화하여, 지난 의료원장 취임사에서 제시한 변화와 혁신,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 경영, 주인의식이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손익구조의 합리화는 필수입니다. 올해에는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 등 자금 소요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등 경직성 비용의 증가에 의해 손익구조 악화가 예상됨으로 운영전반에 대한 위기관리가 필요하고,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중점과제로 추진한 연구인프라 확충 사업은 이제 자생력을 갖춰야 합니다. 성과창출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안정적인 구축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많지 않지만 심장·뇌혈관질환에 대해 진료, 재활, 예방 등 인천지역의 거점병원 역할과 전문화를 정부가 인정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우리 병원이 개원한 이후 보건의료분야 최대의 국책과제 유치이고, 짧은 기간에 우리병원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략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국책과제는 과제 자체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암과 더불어 대학병원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중증질환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의료진 영입과 육성, 그리고 전략적이고 차별적인 운영으로 병원 전체의 경쟁력 강화의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임상과와 교수 개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병원차원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상을 전환하여 혁신적인 선진 의료시스템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가 행복하고, 우리 병원을 대표하며, 더 나아가 인천을 대표하는 특성화 전문센터로 빠른 시간 내에 자리매김 되도록 해야 합니다.

JCI 재인증을 위한 준비입니다

권역 심뇌혈관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강당을 포함한 병원시설

의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JCI 본부 측과 수검일정을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면 예정보다 일찍 수검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2013년은 병원시설공사 때문에 주변이 어수선할 것입니다. 환자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혁신을 통해 환자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병원 새 비전 APRO+ (아프로 플러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행복” 입니다. 선도적인 의료혁신과 모든 교직원이 환자에 대해 “진정한 공감과 따뜻한 배려”를 통하여 “환자행복”이라는 새로운 병원문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제 고객 만족을 넘어 환자행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며, 의료혁신과 경쟁력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인근 병원의 공격적인 홍보와 서구지역에 대형병원이 2014년 상반기 개원 될 예정이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동일규모의 병원이 신설되면 환자가 10% 이상 감소하고, 회복하는데 5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새해에는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식을 갖고, 업무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환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진정한 공감과 따뜻한 배려로 우리 병원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불투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신념을 갖고, 진정으로 공감하고 협력한다면, 우리 인하대병원의 앞날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올 한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보람된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사년 새해 아침
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박 승 립





Hand

얼마 전, 벨기에의 부루지(Bruges)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는 길에 화가 루벤스가 활동하던 안트워프(Antwortp)라는 도시를 방문했다. 도시 한가운데 강이 흐르고, 강에는 다리가 있었으며, 다리를 건너면 시청이 있고 시청 앞에는 큰 분수가 있었다. 이 분수에는 한 소년이 무엇을 던지고 있는 조각상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소년이 던지려는 것은 잘라진 다른 사람의 손이었다.

손.

예전에 드룬 안티곤(Druon Antigoon)이라는 거인이 그 다리에서 통행료를 받았는데, 돈이 없거나 돈을 내지 않으려 하면 손목을 잘라버렸다고 설명 들었다. 이를 보다 못한 실비우스 브라보(Silvius Brabo)라는 용감한 소년이 용감하게도 그 거인의 손목을 잘라 강에 던져버렸으며, 이로 인하여 도시는 손목을 잘리는 공포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시절에 손이 잘리면 다시 붙이지는 못하였을 텐데, 잘린 자리를 어떻게 봉합하여 목숨이라도 건지게 하였을까. 중세 유럽은 참 무서운 곳이었구나, 하면서 자리를 땀다. 돌이 깔린 가로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뽀족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은 주택가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전 피아노를 치던 여인이 손이 잘려 우리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었다. 막 퇴근하려던 참에 3년 차가 호출을 했다. 응급실에 가보니 얼굴이 하얗고 가녀린 여자환자의 왼손이 붕대로 덮여 있었다.

“어떻게 다쳤어요?”

“해파리 자르는 기계에 손이 들어갔어요.”

열어보니 왼쪽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이 국수 가락 같았다. 25세인 이 여인은 해파리냉채를 만들려고 재료를 기계에 밀어 넣다가 손이 말려 들어갔던 것이다. 그녀는 파랗게 질려 내게 물었다.

“저, 피아노 칠 수 있나요?”

“뭐라고요?”

“선생님께 수술받으면 피아노를 칠 수 있나요?”

“.....”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수술을 어느 정도 해놓고 보호자를 만나 설명하려는데, 보호자가 둘째손가락의 떨어져 나간 작은 끝(Stump)을 찾아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야 했다. 그날 나는 집에도 가지 못했지만 수술을 마치고도 환자의 손이 완전히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선 확신이 들지 않았다. 다행히 그 환자는 몇 달 뒤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게 되었고, 한 학기 휴학하였던 대학원에 복학도 하였다. 환자의 간절한 염원을 신이 들어주셨음이다. 성형외과 의사로서 얼굴의 외상을 주로 치료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에게는 그 손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나는 정년퇴임이 꼭 10년 남았다. 나이가 들어가도 손 외과외과로서의 길을 이어가는 것은 이 같은 환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지켜주고 싶어서이다.

피아노 소리가 멀어진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키보드도 큰 손 모양의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다. 또 손이야? 놀라서 다가갔다. 드룬 안티곤(Druon Antigoon)에게 손을 잘린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한 조형물일 것이다. 분명 손목도 없이 툭 잘린 손만 거대하게 조각했는데도 그 손에는 피가 도는 듯 싱싱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오랜 옛날 손을 잃었던 사람들의 염원이 이 손 조형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이한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안내인에게 카메라를 내밀며 셔터를 눌러달라고 부탁하고 조형물에 기대어 섰다. 순간, 그 조형물 깊은 혈관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오는 듯했다. 손 외과외과인 내가 반가웠던 것인가.

조형물의 손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손 외과외과 황 건 교수



(클_ 황 건 교수 / 성형외과)

Women's cancer center



산부인과

황성욱 교수

여성의 건강을 디자인한다!
누구보다
여자의 속(?)을 잘 알고
'치유' 하는 남자

매일 많은 여자를 만나지만 자신을 영화 '건축학개론'의 배우 엄태웅 같다고 황성욱 교수는 말한다. 여자를 대하는 건 잘못된 그런 남자, 그러나 환자로 만나면 달라진 단다. 그녀들의 마음과 속(?)을 잘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글_ 이정희 자유기고가 사진_da view studio 송인혁 실장)

수술장의 모노드라마, 산부인과 선택한 멋진 길

인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궁경부암 수술을 하시던 은사님, 말 한마디 없이 수술이 착착 진행되어 간다. 마치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보는 듯한 이 시간, 간혹 오가는 말은 '당겨라, 컷, 잘라라' 뿐이다.

당시 인턴이었던 황성욱 교수는 '재미있다, 멋있다' 라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찼다. 그렇게 황성욱 교수는 산부인과와 인연을 맺어 지금에 이른다.

황 교수는 수술이 좋아 '서전(surgeon)'을 택했다. 암 수술의 성공은 암 병변의 경계부위에 완전한 제거가 이루어져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황 교수는 서전의 화려한 스킬보다는 원칙을 지킨다.

"수술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환자의 예후로 돌아온다는 걸 잊지 말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암 환자의 수술은 우리가 쏟은 시간만큼 분명 예후가 좋죠."

황 교수에게 의사란.....

황 교수의 전공은 부인 종양학이다.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복막암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분야이다. 그 외 자궁근종, 난소의 혹 등 일반부인과 질환 등을 다룬다. 또 의사는 직업에 대해 불안하고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어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너무 늦게 와서 치료할 수 없거나 수술, 항암제 등에 반응하지 않아서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환자를 볼 때는 가슴이 아파진다.

"환자를 치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나이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치료하다 포기할 때이죠. 나이 많으신 분이 자녀에게 부담될까 염려되어 '나 수술 안 받고 그냥 살다 죽겠다'고 하실 때, 항암치료가 돈이 많이 든다고 거부할 때는 마음이 찢혀요.

치료가 어려운 환자, 예후가 안 좋은 환자는 마음이 무겁고

어떤 경우는 눈물이 살짝 나려고 한 적이 있다고 고백한다. 수술하기엔 약간 늦은 감이 있었던 자궁경부암 2기 후반의 환자가 생각난다며 황 교수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교과서적인 방사선 치료의 적응증에 속하는 환자였다. 그 당시 수술 전 항암화학 치료법이 소개되고 있었던 때라 항암화학요법을 3사이클 시도했는데 놀랍게도 암 덩어리가 줄어든 것이다. 3사이클 치료 후 암 절제수술을 했다.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는데 재발 없이 외래에서 만난단다. 멀리서 와주시는 환자분에게 고마울 뿐인 황 교수다. 살아 준 것도, 이렇게 찾아주는 것도 말이다.

30분 걸고, 그날 고민은 그날 해결한다!

건강비결이라 하면 특별히 무엇을 하기보다는 30분 정도 걷고, 그날 고민은 묵히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 잊으려 하고 서운한 감정도 슬픈 것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꽤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황 교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히 하고 그 결과는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두 손을 놓고 기다리는 황 교수가 아니다. 의사로서 첫 번째 원칙은 치료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기본적인 치료는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는 편이다. 그래서 황 교수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정도를 맞추는 것과 삶에 대한 질을 높이는 쪽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궁은 여자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출산이 끝나고 나면 자궁의 역할이 특별할 것은 없다.

요즘 산부인과 수술은 개복이 아닌 복강경으로 수술하면서 이런 만족도도 높아진 셈이다. 난소암의 경우는 다르지만 말이다. 가벼운 손놀림으로 세밀한 수술을 하는 것이 복강경 수술이다. 복강경 수술에서 진화된 것이 로봇수술인데



사실 산부인과 영역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다. 비용도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나는데 그에 비해 사실 효과가 현저하게 입증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복강경 수술은 대어섯 시간 후면 걸어 다닐 수 있고 입원기간도 짧고 추가치료 타임도 짧아지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이 빠른 수술 치료법이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학생 때 배운 걸로 평생 얻어먹기는 싫습니다(하하). 의학지식이나 치료, 수술방법 등은 발전하는데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의사는 최신 기구, 기술 발전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치료해야 합니다.” 황 교수는 환자의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로서 감수해야 할 고통이 있다면 마땅히 참아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그래도 올해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1명 들어와 주어서 고맙다는 황 교수다. 이런 추세의 현실을 생각하면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훗날 출산을 함께할 의사 시간에 아기가 맞춰야 하는 건 아닌지, 쓸데없는 걱정을 해본다. 설명을 잘해 주는 의사, 수술을 열심히 하는 의사, 환자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의사 이 모든 게 친절한 의사라는 말을 남기고 수술 환자에게로 발걸음을 돌리는 황 교수의 마음은 바쁘다.

Profile_

황성욱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울산대학교에서 의학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Hillmann Cancer center 에서 난소암의 치료, 유전자적 접근방법으로 1년간 연수한 바 있다. 전문 치료 분야는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 여성암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암수술 및 산부인과 수술의 내시경 수술에 탁월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AM 7:30. 회진을 준비하는 황성욱 교수

Talk! Talk!

“자궁암? 궁금해요? 궁금하면 오늘은 공짜!~~”

40대 여성들의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한다. 직접 그녀들의 질문을 모아 황 교수에게 물었다. 속 시원한 답변을 들어보자.

1. 폐경을 하면 자궁암 검사 안 해도 되나?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다 폐경 이후에 올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증가하는 병이라 검사는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자궁경부암 검사는 한 번도 이상 소견이 없었다면 폐경 이후에 안 해도 된다.

2. 자궁경부암 백신은 몇 살에 맞는 게 적당한가? 또 접종 후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

9세부터 26세 전, 가능하면 성에 접촉하기 전에 맞는 게 이상적이다. 그 이후라도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접촉되지 않았다면 맞는 걸 권한다. 그러나 이미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병력이 있다면 권하지 않는다.

3. 난소암 등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이 중요한 발병원인이기 때문에 백신이 가능한 거다. 난소암, 자궁내막암의 발병은 백신과 상관이 없다.

4. 경부암 백신 가다실은 30년, 서바렉스는 50년으로 접종 후 유효기간은 왜 다른가?

유효기간은 제약회사에서 밝히는 부분이다. 미국, 유럽에서 각각 개발된 약이라 서로 간에 신경전이 대단하다. 인체에 투여되고 나서 임상데이터가 아직 10년 채 안 되어서 사실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다.

5. 자궁경부암 백신, 남자들도 맞는다고 하던데?

최근 남성 접종도 권장되고 있다. 도움이 된다.

6. 자궁근종이 암으로 진행되나?

발생부터 다르다. 자궁근종을 치료하지 않고 두어서 자궁육종이 생기는 건 아니다. 암도 독한 놈이 있고 좀 순한 놈, 즉 전이도 늦게 되고 예후도 좋은 그런 놈이 있다. 자궁근종도 다양하다. 폐경 이후에 커진대거나 너무 빨리 자란대거나 하면 검사를 해보아야 한다.

7. 자궁에 문제가 있을 때 적출과 보존의 차이가 알고 싶다

자궁은 여성의 상징이지만 인체에서 목적은 태아의 발육이다. 여자를 여자처럼 만드는 건 난소에서 나온 여성 호르몬이다. 생리는 나쁜 피를 걸러주는 게 아니다. 피를 걸러주는 건 콩팥, 간이 유일하다. 생리는 한 달에 한 번 자궁내막을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출산계획이 아니라면 꼭 필요지 않은 게 자궁이다. 자궁을 들어내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다. 어떤 환자분은 빈궁마마라고도 한다. 환자의 심리와 병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추천하는 방법이 다르다.

8. 여학생의 경우 산부인과 진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초등학교생, 여중생도 온다. 난소의 혹이 있거나 출혈이 있어서다. 복부 초음파를 자궁과 난소를 정확하게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항문을 통해 초음파를 보게 된다. 좀 불편하지만 자궁내막과 난소를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 연중기획 암! 함께이겨내요 / 암시리즈 9 자궁난소암

2011년 9/10월호-유방암, 11/12월호-대장암 2012년 1/2월호-소아암, 3/4월호-위암, 5/6월호-간암, 7/8월호-혈액암, 9/10월호-폐암, 11/12월호-갑상선암
2013년 1/2월호-자궁난소암



예방이

가능한 암

자궁경부암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여성에게서 가장 흔한 여성 생식기 암은 자궁경부암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예방의 키포인트는 병의 진행 과정이 길다는 점과 유용한 선별검사가 있다는 점,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자궁경부암 백신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성접촉 등을 통해서 자궁경부 세포에 침범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한적 감염으로 저절로 소멸 되지만 일부에서 환자의 면역반응을 넘어서 자궁경부세포 이형성증(CIN) 을 거쳐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바이러스의 침범에서 자궁경부암까지 10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빨리 발현되어 20대 여성에게서도 드물게 볼 수 있습니다.

(글_ 황성욱 교수 / 산부인과)

일 년에 한 번씩 규칙적인 산부인과 검사를 받도록 보통 암 검사라고 하면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의미합니다. 질경을 통해서 자궁경부를 보면서 세포진 도말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선별 검사는 자궁경부암의 발생빈도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 세포 이형성증의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을 때 문입니다. 이 검사의 단점 중 하나는 위음성 즉 병변이 있는데도 없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검사해서 정상이라고 너무 안심하지 말고 일 년에 한 번 정도 세포진 검사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것도 선별검사 에 포함됩니다.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초기 병변에서 질출혈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게 된다는 점이 난소암과 비교됩니다만 가벼운 출혈은 환자 본인이 간과할 수 있으므로 성 경험이 있으면 증상이 없더라도 규칙적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인체의 면역반응에 관여하여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인체 내로 잘 침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금연은 자궁경부암에도 유용한 예방법입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성 접촉 전 시춘기가 가장 바람직 시판되고 있는 자궁경부암의 백신은 2가 백신인 서바릭스와 4가 백신은 가다실 두 종류입니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여러 타입 중 16번 18번이 가장 흔하며 이 두 타입의 바이러스가 전체 자궁경부암의 2/3 정도입니다. 2가 백신은 16번 18번에 대한 항체 형성을 만들어 줍니다. 6번 11번 바이러스는 저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아니지만 곤딜로마라는 외음부 사마귀의 원인입니다. 4가 백신은 16번 18번 외에 6번 11번의 항체 형성을 하게 합니다. 이 백신은 성에 접촉하기 전의 시춘기 소녀에게 접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궁경부암 수술은 복강경으로도 가능

자궁경부암이 발견되면 병기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0기 및 1기 중에서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원추 절제술, 자궁경부 절제술, 단순 자궁 적출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그보다 병기가 더 진행된 경우 광범위 자궁 절제술을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 수술을 개복해서 했지만 지금은 복강경으로 가능합니다. 수술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개복수술에 비해 짧지 않지만 수술 후 통증이나 회복기간, 입원기간 등을 고려해 보면 복강경으로 하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로 끝나기도 하지만 추가로 동시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자궁방침윤이 있는 2기 후반인 경우 수술보다는 처음부터 방사선 치료를 위주로 치료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치료가 끝나고 나면 추적관찰의 단계입니다. 처음 2년간은 3개월 간격으로 그 이후 3년은 6개월 간격으로, 5년이 지나면 일 년에 한번 보는 것을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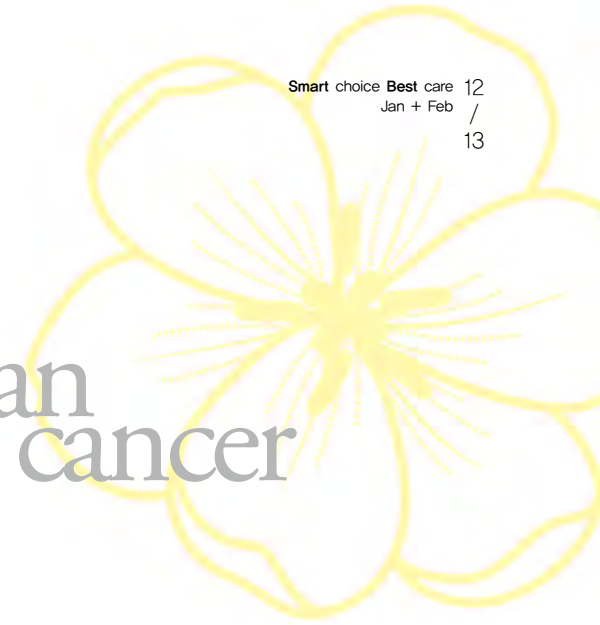
젊은 여성에서도 올 수 있는 난소암, 초기증상도 선별검사도 없어 정기검진 필수
난소암은 자궁경부암과 달리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효과적인 선별 검사도 없습니다. 따라서 병기 3기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피성 세포 암인 경우 대개 폐경 이후 나이가 들어서 생기지만 생식세포 암인 경우 젊은 나이에서 잘 오므로 산부인과 진찰은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나 난소의 혹이 커져서 배가 불러지고 만져지는 증상은 3기 이상에서 발견되며 그 이전의 증상은 비특이적이라 난소암과 바로 연관 짓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진단은 질 초음파 검사와 난소 종양 표지자로 알려진 Ca-125 로 시작합니다. 종합검진에서 Ca-125의 증가로 난소암이 의심되어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Ca-125는 난소암에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궁근종, 골반염 심지어 임신울 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Ca-125가 증가 되어 있고 질 초음파에서 난소에 혹이 보이는 경우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Ca-125 만 올라가 있고 질 초음파에 선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난소암은 개복수술로 꼼꼼하게 암 조직을 제거해야
난소암은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과 달리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보다는 개복해서 하게 됩니다. 난소암 자체가 복막과종을 통해 전이가 잘 일어나므로 개복해서 복강 내를 살살이 살피서 전이된 암 조직을 가능한 한 모두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따라서 수술 시간도 길고 수술 후 회복도 다른 암 환자보다 더디게 됩니다.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는 의사선생님께서 열심히 암 덩어리를 제거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Ovarian cancer



몸의 모낭 세포를 공격하여 탈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성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항암 치료를 끝내고 나면 다시 회복되어 머리털이 자라게 됩니다. 이런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엔 3-6개월 간격으로 외래에서 종양표지자를 통한 검사, 필요하면 컴퓨터 단층 촬영, 양전자방출 단층 촬영 등을 하면서 추적관찰 하게 됩니다. 재발이 의심되면 부위에 따라 다시 수술하거나 항암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단 재발하고 나면 예후는 좋지 않습니다.

수술 후 조직검사가 나오면 가장 적절한 항암치료제를 선택해서 항암치료를 하게 됩니다. 상피성 난소 세포 암의 경우 탁솔, 카보플라틴의 조합으로 6차례 정도 항암치료를 3~4주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합니다. 환자분이나 보호자 분들은 수술 후 몸이 회복된 다음에 항암치료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수술 후 빨리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6차 항암 치료 후 환자의 병기가 많이 진행된 경우나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요법으로 3~6 차례 더 하기도 합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마법의 탄환은 아닙니다. 대사가 빠른 정상세포도 항암제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골수 세포를 공격하여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납니다. 이는 보통 항암제 치료 일주일 후 시작되어 2주까지 최정상대로 있다가 3~4주쯤 회복됩니다. 백혈구 감소증이 있으면 면역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되며 혈소판 감소증이 있으면 출혈이 일어나기 쉽게 됩니다. 소화기계 세포를 공격하여 구역, 구토, 식욕부진, 구내염, 설사 등이 항암제 치료 1주 후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머리와

편식 없는 식습관, 일반인에게 건강한 음식이 암환자에게도 좋아

치료시나 치료 후 환자의 관심사 중 하나는 식사입니다. 해가 되는 음식은 무엇인지 몸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자주 물어 보는 질문은 '고기가 암에 나쁘냐?'입니다. 고단백 영양을 먹게 되면 암세포가 다시 자랄까 걱정해서입니다만 고기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야채, 과일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회를 먹어서는 안 되냐?'는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항암제의 합병증으로 골수 기능이 억제되어 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회에 있을지 모르는 기생충이나 감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도 금기될 이유가 없습니다. 암환자도 일반인과 같습니다. 일반인에게 건강한 음식이 암환자에게도 좋습니다.

●문의 : 산부인과 ☎ 032-890-2270 / 여성암센터 ☎ 032-890-2560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초기 병변에서 질출혈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게 된다는 점이 난소암과 비교됩니다만 가벼운 출혈은 환자 본인이 간과할 수 있으므로 성 경험이 있으면 증상이 없더라도 규칙적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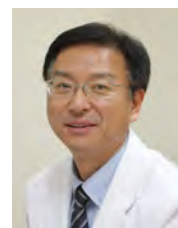
당혹스럽게 만드는

혈당수치 ●

설탕물 마시기 전후 혈당검사로 정확한 진단 심각한 후보자 당뇨병 전 단계

- 중년이 되면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어 혈액검사 정도는 매년 하게 된다. 그때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혈당 수치이다. 이전에 당뇨병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번 검사에서 당뇨병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는 수가 있다. 혹은 지난번 검사에서 의사선생님이 이 정도의 혈당은 당뇨병 수치는 아니므로 식사 조절과 운동만 열심히 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한다. (글 김용성 교수)
-

당뇨병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혈당 검사 결과가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중간 단계에 있는 당뇨병 전 단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이 단계에서 아직 명확한 치료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용성 교수 | 내분비내과 / 당뇨내분비센터소장
●전문분야: 당뇨병, 비만, 내분비

당뇨병 전 단계인지 당뇨병인지 본인도 잘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인구는 거의 320만 명에 이른다. 이 숫자는 점차 늘어나서 2030년에는 5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뇨병 전 단계 인구도 현재 600만 명에 육박하니 엄청난 숫자이다. 이 중에서 병원을 찾아 당뇨병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50% 정도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당뇨병 혹은 당뇨병 전 단계인지 알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당뇨병환자 10명 중 3명은 본인이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30~44세의 젊은 연령층은 약 절반이 본인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있다.

설탕물 섭취 전후 혈당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우리 몸의 정상 혈당은 공복에 100mg/dl 미만이고 식후 2시간(식사 시작부터)에 140mg/dl 미만이다. 그런데 혈당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데 필요한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던지, 분비는 괜찮은데 인슐린 작용이 감소된 상태(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가

되면 혈당이 증가하게 된다. 공복에 126mg/dl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이 200mg/dl 이상이 되면 당뇨병으로 진단된다. 그러면 정상과 당뇨병 사이에 속하는 범위, 즉 공복혈당이 100~125mg/dl(공복혈당 장애)에 속하거나, 식후 2시간 혈당이 140~199mg/dl 사이(내당능 장애)에 있으면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된다.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시행하는 75그램의 설탕물을 마시기 전과 마신 후 2시간에 혈당검사를 하는 방법(경구당부하 검사)이다.

당뇨병 전 단계는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이다

자신이 당뇨병 전 단계에 속한다면 당뇨병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진행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게 된다. 당뇨병 전 단계에 속한 사람의 20~30%가 매년 당뇨병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체중이 갑자기 불거나, 식생활이 불규칙하면 당뇨병으로 진행이 빨라진다.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문제는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미 혈관에 미세한 병변이 생기기 시작하여 조기사망과 심혈관 위험이 정상인보다 1.5~2배 높다고 알려진다.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미래에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후보자이며,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곤란하다. 최근 임상연구가 증가하면서 당뇨병 전 단계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당뇨병으로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고, 심혈관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증거들이 발표되면서 적극적인 관리가 인정되고 있다.

식생활습관 개선이 최선이며, 정기적 상담과 약제복용이 도움이 된다
첫째, 식사조절과 주당 150분 정도의 중등도 운동을 하고, 현재

체중의 5~10% 감량을 목표로 한다. 당뇨병 전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4년간 관찰한 연구에서 생활습관개선만으로도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무려 58%나 감소시켰다. 약물을 사용한 환자는 31%의 감소를 보여 식사조절과 운동이 약물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 나이가 10년 후에 일부 환자에서 체중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당뇨병이 34%나 예방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병원은 3~4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여 혈당검사를 시행하고,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치료를 받는다. 약제 복용이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보다 효과가 작다고 보고되지만, 환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식생활을 개선하고 꾸준히 지속하기가 힘든

상황이면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예방 목적으로 쓰이는 약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당뇨병 전 단계는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과 동반되어 대사 증후군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들 질환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데, 복부비만이 주범이므로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꼭 필요하다.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

당뇨병 전 단계는 개인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꾸준히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 의료진은 환자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여야 하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신에게 식사조절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제는 행동할 때이다.

●문의 : 당뇨내분비센터 ☎ 032-890-2215



겨울철 꼬리뼈 골절은 젊은 여성의 낙상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굽이 높은 구두나 지나치게 꼭 끼는 부츠 등이 미끄러운 길에서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 일어납니다.

압박 골절

방치하면 척추뼈가

주저앉아

척추 골절은 화장실 가기 힘들 수도, 압박골절 방치하면 꼬부랑 허리가 될 수도

- 요즘 기록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히 허리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근육이 수축되고 신체가 경직되면서 낙상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낙상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평소 같으면 크게 다치지 않는데 유연성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충격이 직접 허리, 관절로 전달되면서 심각한 외상을 초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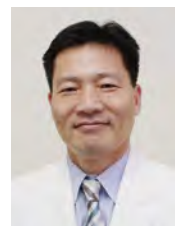
(글_ 조규정 교수)

○

겨울철 낙상은 척추압박골절이나 꼬리뼈골절 위험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 심한 경우 척추압박골절이나 꼬리뼈 골절이 일어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들은 가볍게 넘어지더라도 쉽게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골절은 극심한 통증을 일으켜서 화장실도 가기 힘들게 됩니다. 압박 골절을 방치하면 척추뼈가 점점 더 주저앉으면서 등이 굽는 척추 후만증인 꼬부랑 허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착용해서 변형을 방지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척추 시멘트로 척추뼈를 보강하는 척추 성형술을 시행합니다.

꼬리뼈 골절은 젊은 여성의 낙상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굽이 높은 구두나 지나치게 꼭 끼는 부츠 등이 미끄러운 길에서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 일어납니다. 가방을 손에 들지 않고 어깨에 메는 것이 좋고, 낙상 시 골절 예방을 위해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규정 교수 | 정형외과
•전문분야: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겨울철에는 허리 통증도 더 심해집니다

추위에 체온을 유지하려고 잔뜩 웅크려 걷다보면 허리 통증이 악화됩니다. 허리의 주변 근육이 굳을 뿐 아니라, 혈관들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그로 인해 각 조직에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증가합니다. 허리 디스크 또한 신축성이나 윤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증상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은 허리 통증뿐 아니라 엉덩이나 허벅지 뒤쪽부터 다리를 따라 내려가는 날카로운 통증을 호소합니다. 기침, 재채기, 무거운 물건 들 때 디스크 내부 압력이 올라가는 동작을 취할 때 통증이 더 악화됩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휴식을 취하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합니다. 이러한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 주머니에 손 넣지 않기: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넘어졌을 때 손을 짚을 수 없어 허리, 고관절로 충격이 바로 전달되어 골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갑을 끼든지 아니면 최소한 빙판길에서는 주머니에서 잠시 손을 빼서 손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 미끄러운 길에서는 보폭 줄이기: 미끄러운 길에서 낙상 위험이 예견될 때는 보폭을 줄이고 넘어질 때 충격이 덜 가게 자세를 낮추세요.
- 넘어질 때는 앞으로 넘어지기: 뒤로 넘어지면 손을 짚을 수 없어 허리에 충격이 가고 더 심하게 넘어지면 머리까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는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
- 미끄럽지 않은 신발 착용하기: 운동화, 등산화가 구두보다는 덜 미끄러워서 가끔적 운동화를 신습니다. 구두를 신더라도 가능한 밑창에 골이 있고 닿지 않은 새 구두가 덜 미끄러집니다.

겨울철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 기상 후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 겨울철에도 간단한 걷기운동을 해주세요. 이른 새벽이나 기온이 낮은 시간은 피하고 기온이 올라가는 낮 시간에 하세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도 비타민 D 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 근육을 유연하게, 혈액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해 주세요.
- 겨울철에는 영양 섭취를 더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비타민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과일, 야채를 많이 드세요.

●문의 : 정형외과 ☎ 032-890-2380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나 삼킬 때

심지어 말을 할 때에도

침이 필요합니다.

침샘, 평생 마르지 않는 입안의 용달샘



- 턱밑샘과 혀밑샘의 종양은 귀밑샘의 경우보다 **암 발생률이 더 높으므로 침샘에 혹이 만져질 경우에는 반드시 이비인후과의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침샘에 생긴 종양은 **얼굴 근육의 운동을 담당하는 안면신경과 해부학적으로 가깝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입니다.**

(글_ 최정석 교수)

○

일상의 모든 것 중 하나라도 없어지고 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에 속하는 나라라고 크게 언론에서 떠든다 해도 당장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쿵쿵 나오는 수도물을

쓰는 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침샘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나 삼킬 때 심지어 말을 할 때에도 침이 필요합니다. 침에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와 윤활유 역할을 하는 점액이 있으므로 입안에서 소화 작용뿐 아니라 입안의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며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는 윤활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침에는 면역기능에 관여하는 물질도 있어 구강 내의 세균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이러한 침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곳이 침샘입니다. 결국, 침이 없으면 음식을 먹지도 말을 하지도 못하게 되는 입안의 가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다양한 질환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침샘의 소중함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침샘은 입안에서 침을 만드는 평생 마르지 않는 입안의 용달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샘은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이라는 3쌍의 큰 샘과 구강 내 전체에 분포해있는 여러 작은 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침의 생



최정석 교수 | 이비인후과
•전문분야: 두경부, 소아이비인후과, 편도, 후두 및 음성, 침샘, 갑상선, 구강질환

산량은 정상인을 기준으로 1분이 1ml 정도이며 이는 하루에 총 1.5l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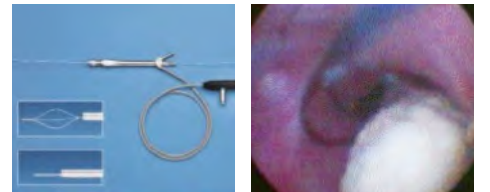
침샘염, 입안 상수원의 오염

침샘의 질환은 크게 침샘염, 침샘의 돌맹이(타석), 침샘의 종양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 원인에 의해서 침샘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침샘염이라 하는데, 귀밑샘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흔한 질환은 바이러스에 의해 소아에서 자주 발생하는 볼거리를 들 수 있습니다. 증상은 경미한 미열과 귀밑샘의 부종이 발생하며, 대증적인 약물치료를 시행합니다. 성인에서의 귀밑샘염은 구강위생이 불량하거나 탈수, 당뇨 등 전신상태가 쇠약한 환자나 고령의 환자, 방사선치료 후 침이 적게 나오는 환자에서 잘 발생하며, 부종과 발열 및 통증을 유발합니다. 치료는 탈수상태의 교정과 항생제 및 진통제 등의 투여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름집이 생긴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침샘에 생긴 돌, 타석 병변부위 식사 중에 더 심하게 부어올라 담낭이나 콩팥에 돌이 생기듯 침샘에도 석회화가 발생하여 돌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타석이라고 합니다. 타석의 특징적 증상은 음식을 씹거나 또는 식사 중에 병변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며, 식사 후에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먹으면 자극에 의해 침의 분비가 증가되어 침이 배출되는 관의 부분 또는 완전 폐쇄로 인하여 침이 입안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침샘 안에 계속 저류되어 침샘이 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타석은 턱밑샘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치료는 수술적인 방법뿐입니다.

침샘 종양은 대부분 양성이나, 혹이 만져질 경우엔 반드시 검사 침샘의 종양은 귀밑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턱밑샘, 혀밑샘

1. 침샘 내시경의 모습
2. 침샘 내시경으로 타석을 꺼내는 모습



의 순으로 발생합니다. 대부분 양성종양의 경우가 많으나, 귀밑샘의 경우 약 20~25%에서 악성종양(암)을 동반할 수 있으며, 특히 턱밑샘과 혀밑샘의 종양은 귀밑샘의 경우보다 암 발생률이 더 높으므로 침샘에 혹이 만져질 경우에는 반드시 이비인후과의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침샘에 생긴 종양은 얼굴 근육의 운동을 담당하는 안면신경과 해부학적으로 가깝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입니다.

최첨단 시술법 침샘 내시경술, 본원에서 유일하게 시행

침샘 내시경술은 침샘의 관에 내시경을 삽입하여 직접 침샘관을 보면서 시행되어 정확한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신의료기술로 국내에서는 인하대병원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최첨단 치료법입니다.

이러한 내시경술은 수술의 범위가 크며, 입원 및 회복 기간이 길고, 얼굴에 흉터가 남는 침샘 절제술과 달리, 입안을 통한 최소한의 침습적인 시술로 얼굴에 흉터가 나지 않으며,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보통 침샘 절제술을 하는 경우 4~5일 정도 걸리는 입원기간을 1~2일로 줄일 수 있어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침샘 내시경술의 성공률은 귀밑샘인 경우 83~85%이고 턱밑샘이면 82~89%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침샘 질환을 침샘 내시경술로 치료할 수 있으며, 타석이나 용종, 협착 같은 양성 침샘질환으로 침샘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귀밑샘인 경우 2%, 턱밑샘인 경우 4%에 불과합니다. 침샘 내시경술은 침샘의 기능을 보존하면서 침샘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능보존적 술기인 동시에, 환자의 얼굴에 상처를 내지 않는 미용학적으로도 우수한 치료법입니다.

●문의 : 이비인후과 ☎ 032-890-2420

정찬우

“건강 비결이요?
무대에서 한바탕 난리 치고 나면
저절로 힐링이죠!”

‘두시 탈출 컬투쇼’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나온 개그맨 정찬우 씨를 만났다. 사업, 후배 양성, MC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그의 에너지는 ‘공연’이라고 한다. 입으로만 하는 공연이 아니라 온몸으로 열정을 쏟아내며 불혹을 훨씬 넘긴 나이를 맞는다.

(글_ 이정희 자유기고가 / 사진제공_ 컬투엔터테인먼트)



‘소통,

개그맨 정찬우는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토크쇼의 웃음으로 서민들의 위안이 되고 싶다. 이 모두는 개그를 무대로 옮기면서 관객과 함께 ‘소통’을 하며 공감하는 개그를 만들어가는데서 출발했다. 그래서 또 유일하게 ‘공연’에 집착하며 그 끈을 놓지 않는 이유이다.

어릴 적부터 엄마 화장품품을....

“요즘요? 늘 하던 라디오 방송이랑 안녕하세요하고 있고, 그리고 또 늘 하던 2013 컬투쇼 전국 공연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공연 때문에 뛰고, 땀 흘리는 게 운동이고 건강비법이고 살도 빠지더라고요.” 밥이 좋고 소주가 좋은 그이다. 치킨에도 소주를 마신다. 그리고 40대 들어서는 복합영양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건강검진은 1년에 1번씩 하고 있다. 모두 정상이다. 간도 아주 좋다고 한다.

“제가 생각하는 웰빙은 정직하게 사는 거! 그것이 웰빙 아닐까요? 가식은 정말 싫어합니다. 다. 정직하게 살면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해지죠.”

하얗고 깨끗한 피부의 비결을 물으니, 의외라는 표정과 함께 굳이 비결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엄마 화장품’을 사용했다고 한다. 지금도 알콜성이 강한 남성용 화장품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1. 국내 최초로 방청객이 있는 라디오 공개 쇼로 방송되는 ‘2시 탈출 컬투쇼’ 현장.
2. KBS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의 진행자들과 함께



(사진출처_ KBS 사이버 홍보실)



방청객과 함께하는 최초라디오공개쇼 방청중 웃다가 양수 터지고, 자살 결심 바꾸고! 열심히, 솔직히 진행하자라는 생각으로 8년째 라디오 진행을 해오고 있는 정찬우이다. 국내 최초로 라디오 공개 쇼라는 형식과 괴로 출발했고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섰다. 방청객이 없는 개그가 오히려 어색하다는 그는 공연을 늘리는 팀이다 보니 아주 편하다고 말한다. 어찌 보면 이렇게 형식을 파괴에서 오는 기존과 언밸런스함에서 즐거움이 있지 않나 싶다.

“재미없는 사연이면 읽다가 ‘너무 재미없다. 이런 사연 보내지 말아요.’ 라고 솔직히 말해버려요.” 이런 솔직함에 서운하지 않는 건, 그들의 진정성을 대충이 알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소통을 끊임없이 해왔

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컬투쇼 방청객으로 거쳐 간 7만 여명은 살아있는 그의 ‘정직’을 느꼈으리라. 방송 에피소드도 정말 많다. 출산 예정일이 다 된 방청객이 웃다가 양수가 터진 일, 잃어버린 차를 주인에게 찾아줬던 일, 이혼 했던 부부가 사연을 보내 다시 재결합한 일 등 끝이 없다. “가장 잔했던 것은 자살하려 가던 분이 방송을 듣다가 웃음이 나와서 ‘나도 웃을 수 있구나’ 를 깨달으며 살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정말 보람 있죠.”

언제나 아버지처럼....

그는 아버지를 ‘멋진 술한 잔 사드리고 싶은 분’이라고 회상한다.

“저의 아버지는 뛰어난 언변가이셨죠. 아버지의 말씀에 한 번도 반감이 생긴 기억이 없는 걸 보면 교육을 아주 잘 시킨 거 같아요. 이렇게 말 잘하는 끼가 저한테도 있겠죠.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고, 제 이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이고 싶어요.”

아사하신 아버지의 사연은 얼마 전 방송을 통해 공개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 6세 지능이 되신 아버지를 힘으로 막는 일은 힘든 일이었다고 이품을 고백하기도 했다.

어머니에게 매일 라디오 방송하러 나오는 길 전화 드리를 습관처럼 정해 놓았다는 그이다. 또한 서슴없이 보물이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선 김태균, 나와 인연이 있는 후배들..... 은통 그에게 보물은 ‘사람’이다.

“10년 후라.....

아! 정말 모르겠어요. 제작을 하고 있을지, 무대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선택해 주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궁색하기 보다는 나누며 살고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사람냄새가 매서운 겨울 바람보다 먼저 불어온다. 사람과의 소통, 인연이 중요한 정찬우, 그의 인간적 인무게는 분명 정직하다.

평평 내리다
몽글몽글 맺히다... 반하겠네, 눈꽃

그러니까, 떠나보는 것이다. 산자락에 구름 홀연히 내려앉는 날에는, 바람이 습기를 잔뜩 품은 날에는 길을 나서 덕유산에 올라 보는 것이다. 덕유산에 올라 갑자기 밀려온 구름 속을 뚫고 걷고, 해초처럼 떠다니는 운해를 타고 넘자. 그러다 지독한 눈보라가 일거든, 그 폭풍 같은 눈(雪)들의 잔치도 지켜볼 일. 겨울 덕유산에선 그마저 아름답다. 아니, 어쩌면 눈과 바람과 구름과 서리가 피우는 눈꽃으로 눈(目)이 한참은 더 행복할 테다. 그러니 떠나보자. (글/사진_ 이시목 여행작가)

향적봉으로 오르는 등산로에서 바라본 설천봉이 장관이다.

은빛으로 눈부신 '冬花나라' 를 걷다

눈부신 꽃의 잔치가 벌어졌다. 천상의 풍경 같다. 상상해 보시라. 수천,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흩뿌려놓은 듯 거침없이 반짝이는 백설(白雪)의 향연이라니. 말 그대로 평생 잊히지 않을 축복 같은 풍경이다. 하나 겨울 산이 제 아무리 아름다워도 어떤 이들에게 산행은 '고행(苦行)' 이다. 차마 꿈도 꾸지 못할 '그림의 떡' 같은. 그러나 이젠 마음껏 꿈꾸시라. 덕유산(1,614m)은 산행의 수고로움은 덜하고, 풍경은 아름다운 눈꽃 트레킹의 명소다. '덕이 많아 너그럽다' 는 이름처럼 누구에게나 오름을 허락하는 너그러움이 있고, 어느 산보다 자주 풍성한 눈꽃을 펼쳐 보이는 너그러움이 있는 산이다. 우리가 굳이 구름 많고 습기 가득한 날, 덕유산을 찾는 이유다. 단, 아침나절의 여유작작한 늦잠은 거두시길. 덕유산,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얀 눈꽃이겠다. 덕유산의 눈꽃 잔치는 해 뜰 녘부터 오전 10시경까지가 절정이다. 그러니 부디 '게으른 자의 행복' 보다는 '부지런한 자의 고난' 을 택할 일이다. 먼저 트레킹의 기점이 되는 무주리조트부터 찾자. 삼공담방지원센터에서 인월담과 백련사를 거쳐 정상(향적봉)으로 이어지는 8.5km 길이의 등산로를 이용해도 되지만,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여행이라면 설천하우스에서 설천봉으로 이어지는 곤돌라를 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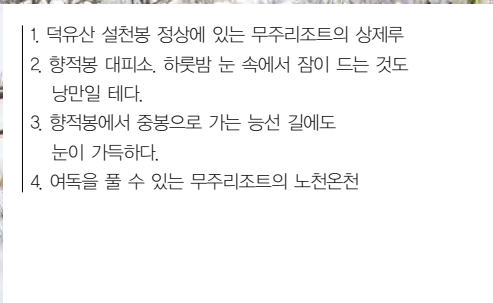
것이 좋다. 2.6km에 불과한 거리지만 이 곤돌라는 국내 스키장 중에서는 최고 높이인 해발 1,520m의 설천봉까지 단숨에 오르는, 그야말로 덕유산 정상을 밟는 초고속 지름길이다. 15분에 불과한 짧은 구간이지만 하얀 눈가루를 쓴 크고 작은 나무들이며, 능선을 휘감아 도는 구름이 도원세계인 듯 황홀하다. 설핏 창 밖 풍경에 취하다 보면 설천봉에 닿는다. '눈 덮인 하늘 봉우리' 라는 뜻의 설천봉은 이름 그대로 산과 하늘이 맞닿은 '하늘 산'. 눈(目) 닿는 곳마다 눈(雪)이고, 눈(雪) 덮인 곳마다 하얀 눈꽃이다. 좀체 인연이 닿지 않을 것 같았던 눈꽃도 이곳에서만 큼은 만날 확률이 80~90%. 바람 많은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구름 같은 눈꽃이 튄다. 설천봉의 명물인 상제루에도, '살아 천 년, 죽어 천 년' 을 산다는 주목에도 새하얀 눈꽃이 피어 객의 가슴을 흔든다. 하지만 설천봉은 화려한 눈꽃잔치의 서막에 불과하다. 설천봉에서 향적봉으로 이어지는 0.6km 길이의 산길이 덕유산 눈꽃 트레킹의 본 막이다. 눈꽃, 아니 구름 같은 눈꽃과 얼음 같은 서리꽃이 함께 피어 이룬 꽃길이다. 누구라도 걷지 않고서는 건디지 못할 길. 한겨울 동안, 이 길은 세상 어느 산길보다 화려한 꽃길이 되고 찬란한 눈길이 된다.

설천봉에서 향적봉으로 이어지는 산길이 아기자기한 '눈꽃 길' 이라면, 덕유산의 주봉인 향적봉은 드넓어 가슴 트이는 설원이다. 낮은 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은색의 산호 숲. 능선을 따라 하얗게 늘어선 눈밭으로는 파란 하늘도 걸렸다. 바람 많아 큰 나무 하나 없는 평원 저편으로는 겹겹이 쌓인 덕유연봉의 파노라마도 장쾌하게 펼쳐진다. 허나, 향적봉에서 향적봉대피소를 거쳐 중봉으로 이어지는 덕유산 정상능선은 원래 습기 많고 바람 많아 기후가 변화무쌍하기로 유명한 곳. 완만한 구릉 저편 산자락에서 거를도 없이 자주 운무가 밀려든다. 안개는 안개대로 쏟아져 쏟아져 달려와 산자락을 덮고, 구름은 구름대로 득달같이 밀려와 발밑으로 깔린다. 그러다가도 한순간 마법처럼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다. 겨울날의 세찬 눈보라가 그저 '일장춘몽' 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지나가 버린다. 허망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만큼 더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준다. '못내 아쉬워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자연의 선물 말이다.

노천온천욕의 낭만과 운치를 즐기다

트레킹 후에는 무주리조트도 즐겨보자. 덕유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무주리조트는 스키와 온천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산

악형 휴양지. 남부권을 대표하는 특급 스키 리조트로, 총 30면의 다양한 슬로프를 갖췄다. 중·상급의 실력을 갖추었다면, 일단 설천베이스에서 가볍게 몸을 풀 후, 설천봉(1,520m) 정상에서 시작하는 실크로드 슬로프로 발걸음을 옮기자. 트레킹을 위해 올랐던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인데, 거칠게 그려 내려간 한 폭의 수묵화처럼 시선이 하얗게 트이고, 풍경도 날렵해 보기 좋다. 하지만 장쾌하게 뻗은 덕유연봉을 눈 밑으로 깔고 달리는 기분에 비하면 '조족지혈'. 슬로프 중턱에 깔린 구름을 뚫고 달리는 재미가 보는 것 이상이다. 바다 속의 해초를 피해 달리는 뱀장어처럼 유연하고, 매끄럽게 구름 속을 빠져나가는 기분이란, 직접 타보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스틸이고 속도감이다. 설원을 신나게 누빈 뒤에는, 온천욕을 즐길 차례다. '서역기행' 슬로프 하단에 있는 '세솔동 노천온천' 은 덕유산과 무주리조트를 찾는 여행객들의 로망. '아프레스키(Apres Ski : 스키 뒤풀이)의 명소다운 운치와 낭만을 품었다. 비록 사우나에 딸린 수영장의 부속시설이긴 하지만 노천탕에서는 눈 덮인 슬로프와 설원을 달리는 스키어들을 지켜보며 온천욕을 즐기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몸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겨울 노천 온천욕의 낭만. 여기에 솜털 같은 눈까지 내린다면 금상첨화겠다.



1. 덕유산 설천봉 정상에 있는 무주리조트의 상제루
2. 향적봉 대피소. 하룻밤 눈 속에서 잠이 드는 것도 낭만일 테다.
3. 향적봉에서 중봉으로 가는 능선 길에도 눈이 가득하다.
4. 여독을 풀 수 있는 무주리조트의 노천온천

travel TIP

1박 2일 패밀리 투어 추천 일정

1Day 덕유산 눈꽃 트레킹~무주리조트(스키 + 노천탕)

2Day 머루와인동굴(머루와인체험, 063-322-4720)~트리스쿨(목공예 체험, <http://www.treeschool.co.kr>)

코스

설천봉(0.6km, 30분) → 향적봉(1km, 1시간 15분) → 중봉(1km, 35분) → 향적봉(0.6km, 20분) → 설천봉(원점 회귀, 3.2km, 2시간 40분)

준비

곤돌라를 이용한 트레킹이어서, 눈이 제법 많이 쌓여 있어 등산화와 아이젠은 필수다. 스패츠가 있으면 바지가 젖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스틱이 있으면 미끄러짐이 덜하다. 두꺼운 방한복과 모자, 장갑 등도 필수 준비물. 자세한 등산로 정보는 덕유산국립공원 홈페이지(deogyu.knps.or.kr) 참조.

교통

대전영동고속도로 무주 IC를 빠져나와 장수방향 19번 국도로 좌회전한다. 사산교차로에서 무주구천동 이정표를 따라 49번 지방도로

좌회전해 달리다 치목터널을 지나 만나는 하조사거리에서 직진. 구천동터널을 통과한 다음 거창 방향 37번 국도로 우회전해 1분쯤을 달리면 리조트 삼거리. 이곳에서 우회전해 들어가면 무주리조트다.

맛집

무주를 대표하는 별미는 어죽이다. 무주군청 뒷골목에 있는 금강식당(063-322-0979)과 앞삼 인근에 있는 섬마을(063-322-2799)이 유명하다. 하지만 리조트 내에 있는 숙소에서 묵을 계획이라면, 리조트 가까운 곳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터. 리조트 입구에 무주향(063-322-3341~2, 더덕 정식), 덕유산회관(063-322-3780, 콩나물해장국) 등 식당들이 많다.

숙박

무주리조트(063-320-7000, www.mujuresort.com) 내에 특2급 호텔인 티롤을 비롯한 가족호텔과 국민호텔이 있고, 리조트 입구에 로그하우스펜션(063-322-3355, www.loghouse.com), 허커펜션(063-322-8008, www.huckerkorea.com) 등 다양한 종류의 숙박시설이 있다.



초음파, 틀니, 체외수정 시술비 그리고,

간암, 위암 치료제 본인부담금 5%!!

2013년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바로 그것은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또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부분이 분야별, 정책별로 다양하고 많다.**

내가 꼭 챙겨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알뜰한 새해를 맞도록 하자.** (글_진해숙 자유기고가)

올해 가장 환영받는 새 제도는 22년 만에 다시 빨간 불을 켜는 한글날 공휴일 재제정이다. 이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따로 열렸을 정도다. 꿀맛 같은 휴일을 제공하고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가치와 한글날의 제정 의미를 되새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받고 있다.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되어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환경 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로 확대된다. 2013년 월별로 기억하면 좋은 달라지는 제도를 모아 보았다.

1월

간암, 위암 약제 본인 부담률 낮춰

새해부터 보건복지부는 가계부담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한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간암(넥사바), 위 암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5%로 크게 낮춘다.

- 간암치료제(넥사바) 본인 부담경감(기존 50% → 5%)
- 위암치료제(TS-1) 본인 부담경감(기존 100% → 5%)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제도 개선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 된다.

- 음식점 외부가격 표시 (대상: 신고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 외부가격표시는 '13년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체외 수정 시술비 지원 상한액 확대(4회차 지원금: 100만 원→180만 원)
-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유지
- 인공수정은 2012년과 동일하게 3회까지 50만 원 범위 내 지원.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 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단 도서나 벽지 등은 제외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를 통한 유기동물의 발생억제,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및 인수 공통전염병 예방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이다.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
- * 도서·오지·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제외

실손 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 의료보험만 따로 떼 단독 상품이 출시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10%의 실손 의료보험 상품 외에 자기부담금 20% 상품을 출시하여 의료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보험료·보장수준이 제공된다. 하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가 10%에서 20%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소비자가 실손 상품만을 원할 때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 상품과 함께 실손 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해 끼워팔기 식 보험 판매에 의한 소비자 부담을 개선한다. 보험료 갱신주기 단축(3년→1년) 및 보장내용을 일정 기간(최대 1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개선한다.

- 실손 의료보험 단독 상품출시 ● 보험료변경(갱신)주기단축, 보험기간 현실화 ● 자기 부담금 선택권 확대 등 ● 단, 기존 특약형태로 판매되는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제도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

3월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올해부터 영유아들이 생후 2년 내 접종하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백신필수예방접종도입 (전액본인부담→5천원본인부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추가 지원으로 무료접종 가능(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만 3~5세 어린이 전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만3~5세 월령별 누리과정의 핵심은 바로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만3~5세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공통과정) 제공 ● 전 계층에 보육료·유아 학비지원하고 연차별 단가인상(소득 하위70%→전 계층) ● 22만 원('13년)→24만원('14년)→27만원('15년)→30만원('16년)

5월

65세 이상 폐렴구균감염 무료예방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감염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되었다.

-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보건소 접종 지원(전액본인부담→무료접종)

6월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공중시설 이용 시설 내 간접 흡연피해 방지 및 청소년 흡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 흡연이 금지된다.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등 PC방 내 전면 금연 실시 ● 시행일은 2013년 6월 8일이다.

이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동·청소년의 성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처벌이 강화된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제도가 국민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성 범죄자알림(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통해 성 범죄자의 상세주소(도로명과건물번호)와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죄명 및 횟수)까지 확인할 수 있다. ● 시행일은 2013년 6월 19일이다.

7월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급 여수급자들의 의료보장성 강화 및 자발적 건강 관리유도를 위해 보장성 확대 항목을 늘린다.

- 의료 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확대(107개→144개) ● 자발적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 추가지원(5만 원/년)
- 시행일은 2013년 7월 이후로 잠정중이다.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틀니도 보험적용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됐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로 확대, 적용된다.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 틀니까지 확대 된다.

10월

초음파 검사도 보험 혜택

암,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거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

- 암, 심뇌혈관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거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행정처분청인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력차별폐지분위기에 맞춰 환경 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 요구되던 학력제한이 없어진다. 고졸자에게 다양한 전문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력제한 폐지가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나는 한살이다.....

나는 결혼을 앞둔 두 딸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오늘도 안전운전을 다짐하고 출근을 한다.
평소에는 병원이 어떤 곳인지도 모를 정도로 건강에 자신을 가지고 지냈기에 나와 우리 가족이 겪은
이번의 아픔은 나의 인생에 큰 반환점이 되었다. (글_ 강원희 님)

내 나이 60이라지만 마음은 늘 청춘이었고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을 갖고 살아왔는데 결혼을 앞둔 큰딸의 선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기분 좋게 검진을 마치고 일주일 후 판정을 보기로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으로 향하였다.

그로부터 사흘 뒤, 남편의 일로만 생각했던 일이.....

인하대병원 검진센터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위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상 악성 병변이 보여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보러 오시라는 내용이였다.

“에이 아니겠지, 무엇이 잘못되었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눈물을 보이던 두 딸은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서울의 유명 병원을 다시 찾아가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도 하였지만, 검진을 받으면서 느꼈던 편안하고 원활한 시스템에서 신뢰를 얻게 되었고 암을 조기 발견해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검진센터에서 나는 바로 소화기내과 김형길 교수에게로 연계가 되었고 검진 시 시행한 위내시경 사진을 보며 불안해하는 나와 가족들에게 ‘검진받기를 잘하셨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의 상황과 치료 방법을 설명해 주셨다.

만약 증상을 느꼈을 때 검사를 했더라면 이미 늦어 위 전체를 절제해야 함은 물론 예후가 좋지 못했을 거라는 교수님의 설명도 이어졌다.



검진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입원수속이 진행되었고 정밀검사는 물론 수술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행히 어려움이 예상됐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나는 빠른 회복을 찾았다. 퇴원 후 석 달 뒤 시행한 추적 내시경 검사에서도 병변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순간! 그간의 심리적 고통과 불안함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한 살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제 2의 삶을 얻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이 우선적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지금은 수술 전과 다름없는 건강상태로 다정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인하대병원 교직원분들, 특히 건강증진센터와 주치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건강 가족의 미래입니다.

인생의 꿈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건강입니다.



인하대병원 건강증진센터/플러스센터는

1996년 본원 개원과 함께 출발하여 ISO9001 인증과 우수건강검진센터인증(2008), JCI 인증(2010), 한국 최초 미국 메디컬 투어리즘 유치 등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장비와 의과대학의 우수한 의료진을 기반으로 현대인의 주 사망원인이 되고 있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을 조기에 발견, 조기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Program : 암 정밀(6/7대암) / 뇌 정밀 / 심장 정밀 / 프리미엄 / 숙박검진 / PET CT 검진 / 부위별 정밀검진(소화기/폐/혈관/무릎관절/여성) / 예비부부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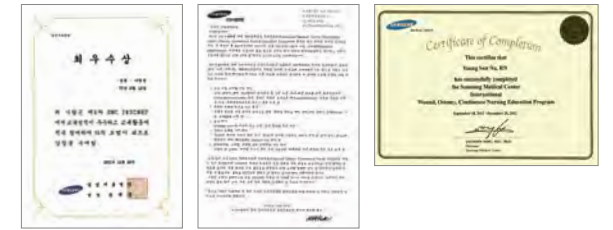
※정밀 검진은 개인별 병력과 가족력, 생활습관, 평소 증상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의 후 계획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문의 : 인하대병원 3층 건강증진센터/플러스 센터 ☎ 890-3331/3300

간혹 장루를 가진 환자분들 중에 “다른 간호사들처럼 주사 놓거나 하는 일을 하지 왜 이 징그럽고 지저분한 것을 만지는 일을 하세요?”라고 묻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나 나는 장루가 징그럽기보다는 오히려 붉은 튤립 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제 상처장루실금 전문 간호과정’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수료한 김미진, 나영선 간호사(사진 좌측)



매일 붉은 튤립 꽃을



마주하다

(글_ 나영선 / 병동간호팀 (서11병동) -
국제 상처장루실금 전문간호과정 최우수 수료)

● **카트 한가득** 상처와 장루 제품을 싣고 1층부터 18층까지 병원 구석구석을 다니는 간호사가 있다. 바로 상처 장루 전담 업무를 하는 간호사다. 나는 2000년도에 입사하여 외과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장루 및 상처 환자 간호에 관심을 갖고 서울대병원의 상처장루실금 간호과정을 수료하고 2009년부터 상처 장루 전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회가 점차 노령화되고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욕창을 비롯한 당뇨성 상처, 혈관성 상처, 누공과 같은 만성 상처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대장암 및 직장암 환자가 늘어나면서 장루(항문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배변이 나오는 길을 우회시키기 위해 만든 구멍)를 가진 환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환자분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장루 보유자들이 올바른 신체상을 갖고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돕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나는 분홍빛의 얇은 상처부터 건이나 뼈까지 보이는 깊은 상처까지 다양한 상처를 본다. 깊고 험한 상처를 접할 때는 ‘치유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 나올까?’ 등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도 드레싱을 하면서 상처가 점점 깨끗해지고 붉은 육아조직이 차오를 때는 뉘지 모를 뿌듯함이 생긴다.

● **간혹 장루를** 가진 환자분들 중에 “다른 간호사들처럼 주사 놓거나 하는 일을 하지 왜 이 징그럽고 지저분한 것을 만지는 일을 하세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나 나는 장루가 징그럽기보다는 오히려 붉은 튤립 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졌다고, 꽃과 같다고 말씀드리면 장루를 바라보지도 않던 환자분들이 그제서야 웃으시며 “내 눈엔 징그럽게만 보였는데 계속 예쁘다고 해주니 조금 그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고맙워요.”라고 말씀하신다. 나의 말 한마디가 환자분들의 적응에 좀 더 도움이 된 것 같아 오히려 내가 고맙고 보람을 느끼게 되며 그분들이 일상생활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교육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 업무를 하면서 좀 더 전문화된 지식과 임상 기술을 배우고 싶어 2012년 9월부터 3개월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리는 6차 국제 상처장루실금 전문 간호과정에 다녀오게 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상처 관리, 누공과 삽입관 관리를 포함한 장루 관리, 실금 관리, 그 외에 전문 간호사로서 필요한 교육, 연구, 관리, 전문가적인 자질개발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되며, 320시간의 이론과 실습교육, 5번의 시험과 case 발표, 강의 훈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뻑뻑한 스케줄을 병원일과 병행해야 하는 체력적 부담과 이전에 동료 간호사인 김미진 간호사가 이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수료하여 잘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교육 과정은 임상 사례 위주로 이루어져 이해하기 쉬웠고, 직접 돼지 족도 해부하고 서로의 배에 장루 위치도 표시하는 등 실습이 많아 흥미로웠다. 또한, 선생님의 11 실습 지도를 받을 수 있어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지식이나 기술들을 교정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육 과정을 통해 업무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행히도 동료 간호사에 이어 나 또한 이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수료하게 되어 기쁘고 인하대병원을 홍보하고 온 것 같아 뿌듯하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습득한 것을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빠른 치유를 돕고 만족감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해 목표라면 국제 상처, 장루, 실금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간호사가 되는 것이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올해도 열심히 정진할 것이며 다시 한 번 교육을 지원해주신 병원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1. 시술 전 대기중인 이리나 씨와 그녀의 딸
2.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리나 씨와 일행을 만나다.
3. 이리나 씨를 집도한 심장내과 우성일 교수와 함께
4. 러시아 코디네이터 스베틀라나 씨와 이리나 씨



행운의 여신이 내게 웃어주다

“쓰바시바(감사합니다) ~~”
항상 미소로 해주신 인하대병원 여러분!!

저는 블라디보스톡에 사는 이리나입니다. 2012년 6월에 심근경색을 앓았고, 시립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치료했으나,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관상 동맥 조영술(angiography) 시행 결과, 3개의 관상동맥 중 2개가 막혀 '관상동맥 우회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시술 혜택이 있으나, 이미 많은 대기자들이 수 년 동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다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 신청을 하였지만 제 차례가 돌아오기까지는 너무나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이 제게 웃어주었습니다. 저의 딸이 우연히 인터넷에서 '베르날'이라는 현지여행사와 한국의 '인하대병원'에서 공동으로 나눔 진료 참여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고, 여행사 직원이 친절하게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3일 후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수술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완전 무료라는 것이죠!

'베르날' 여행사에서 한국행에 필요한 비자 및 서류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게다가 저와 제 딸의 비자 및 비행기 티켓까지 무료로 진행해주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 코디네이터 및 직원들이 나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도착 당일에는 호텔에서 쉬었고, 다음 날 아침 코디네이터 스베틀라나 씨가 호텔로 와 저희를 병원으로 데려와 주었습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인하대병원, 인천의료관광재단, 러시아 현지 에이전시 및 언론사와 함께 진행한 “나눔진료” 대상자로 선정된 마이슈크 이리나(Maisuk Irina / 여, 60세)를 직접 본원으로 초청하여 심장질환 진료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스텐트삽입술이란, 손목 쪽의 혈관을 통해 가는 관을 넣은 후, 혈관의 막힌 부위를 찾아 그물망처럼 생긴 스텐트를 좁은 혈관 안에 활짝 퍼줌으로써 막혔던 혈관으로 피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니다. 병원에 가지마자 수술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고, 스베틀라나 코디네이터가 의사와 환자 간의 통역을 맡아주었습니다. 수술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병실에서는 지체 없이 수액을 꽂고, 혈액, 소변검사 및 EKG, X-RAY 등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웠던 것은 병원 직원들이 항상 미소를 머금은 채 인사를 건네고 검사 안내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는 러시아에서 진단받은 것처럼 2개의 관상동맥이 막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에서 권고한 '관상동맥우회술' 아닌 그보다 위험률이 적고, 외과적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가슴을 열고 수술할 필요가 없는 '스텐트삽입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수술 실로 옮겨졌고, 심장내과 우성일 교수님께서 집도하셨습니다. 시술 시 마취는 전신마취가 아니라 손목에 마취 크림을 바르는 정도였고, 시술 내내 모니터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시술이 끝난 후 병실로 옮겨졌고, 의료진들이 수시로 저의 상태를 체크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사를 받았고, 교수님이 회진을 오셔서 시술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공적으로 됐다는 말에 기뻐했습니다. 그 외에 주의사항 및 관리에 대한 설명과 약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회진 이후, 스베틀라나 코디네이터가 퇴원 수속부터 호텔로 이동하는 것과 다음날 공항에서 출국 수속까지도 진행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아무 어려움 없이 치료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현지 에이전시 '베르날' 과 저를 치료해주신 심장내과 우성일 교수님, 그리고 코디네이터 스베틀라나 씨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Q & A

일본뇌염 예방 접종, 생백신과 사백신 교차접종 NO!!

Q 고혈압약으로 칼슘길항제를 복용 중인데 칼슘 영양제를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음식으로부터 섭취한 칼슘이나 칼슘제는 칼슘길항제의 작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 고혈압에 사용되는 칼슘길항제는 우리 몸 안의 혈관 벽에 있는 칼슘채널을 막아 평활근세포의 수축을 차단함으로써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협심증, 부정맥 등을 치료합니다. 이때, 칼슘길항제는 칼슘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칼슘이 이동하는 통로인 칼슘 채널을 차단하므로 칼슘채널 차단제라고 불립니다.

칼슘영양제는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없는 경우 복용하게 되며, 몸 안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 칼슘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칼슘을 정맥 투여한다면 칼슘채널 차단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 칼슘채널 차단제를 과량 투여하였을 때, 칼슘을 정맥 투여하여 칼슘채널 차단제의 효과를 반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구로 섭취하는 칼슘보충제와 칼슘채널차단제와의 상호작용은 아직 밝혀진 바나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Q **아기가 일본뇌염 사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였는데 사백신이 품질되었다고 합니다.**

2차 접종을 생백신으로 해도 되나요?

A 일본뇌염 백신의 생백신과 사백신의 교차접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백신 스케줄에 따라 추가접종까지 완료하도록 권장합니다. 일본뇌염 사백신으로 접종을 결정한 경우, 생백신 접종은 인정하지 않으니 사백신으로 재접종하도록 합니다. 사백신이나 생백신은 안전성이나 유효성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 모두 국내에서 사용가능하나, WHO와 질병관리본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는 불활성화 사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일본뇌염 백신의 불활성화 백신(사백신)과 약독화 생백신의 접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신유형	접종 일정
불활성화 백신(사백신)	1차, 2차 접종 : 생후 12~23개월에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
	3차 접종 : 2차 접종 12개월 후
	추가접종 : 만 6세, 만 12세 때 각 1회
약독화 생백신	1차 접종 : 생후 12~23개월
	2차 접종 : 1차 접종 12개월 후
	추가접종 : 만 6세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상우내과의원
박상우 원장

따뜻한 의료와 사랑으로 신뢰받는 병원으로



나누는 의료를 펼치고 싶은 박상우 원장

우리만의 색으로 맞고 싶어

직원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생각하며 2012년 4월 상우내과의원 박상우 원장은 계산동에 자리를 잡았다.

박 원장은 개원 전 한림병원에 몸담고 있어 지금의 이곳은 본인에게 친숙한 곳이다. 개원의는 가족적이고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료 공간이어야 한다고 박 원장은 말한다.

상우내과의원은 20여 대의 인공투석기 가능한 부설 인공 신장실을 두고 있고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과 함께 편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투석은 바늘 꽂는 과정에서 스킬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저희 인공 신장실 간호사분들은 서투르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이 없고, 필요에 따라 처방도 바로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간호와 함께 사랑까지 담아 가실 수 있다고 한마디 더 거드는 박 원장의 얼굴은 직원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의료를 오롯이 나누는 소박한 꿈

박 원장은 당뇨,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치료 의지가 남다르다. 특히 당뇨는 정상에 가까워지도록 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무조건 인슐린에 대해 두려운 생각을 갖는 환자를 볼 때면 안타깝다. 치료약이라는 것이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환자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다. 그래서 항상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올바른 지침서를 나눠주고 있다.

“개원하고 보니 힘든 부분도 많이 있네요. 우선 수입부분을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의료 손길을 돕는 직원들에게는 소통되는 직장생활을, 환자들에게는 따뜻한 자신의 의료를 한편에서 오롯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소박한 꿈과 기대로 개원 첫날을 맞았다. 이 꿈을 빨리 실현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전해진다.

모교인 인하대병원과 거리가 있다 보니 사실 불편한 점도 있다. 동문을 위한 의료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 또 이는 책(?)만 해 주어도 많은 든든한 힘이 될 것 같다고 한다.

또 박 원장은 16세의 가녀린 소녀의 목에 카테터(의료용 튜브)를 꽂아야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울컥해진다. 잘 견디어 내어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가끔 찾아오는데 박 원장에게는 언제까지 대견한 ‘소녀’로 남을 듯싶다.

투석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잘 아는 박 원장이다. 그러나 밝은 얼굴도 투석을 받는 소녀를 생각하며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또 다진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032-551-0860



20여 대의 인공투석기를 갖춘 상우내과의원의 부설 인공 신장실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NEWS 0102

Inha Univ. Hospital 2013

소화기센터 내시경실 - '우수내시경실 인증'

1월 18일, 인하대병원 소화기센터 내시경실이 '우수내시경실 인증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금번 실시된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이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질 향상 도모를 통해 환자 진료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지난해 6월 처음 도입되어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인증평가는 현재 내시경시술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의료진과 실무자를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현장 정밀 인증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고 내실있는 인증제라고 할 수 있다. 인하대병원 내시경실은 인력, 시설, 장비, 진료과정, 성과관리, 감염 및 소독 등 크게 5개 분야, 72개의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어린이재단(인천지부)에 사랑의 성금 전달



1월 14일, 인하대병원은 내원객과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으로 모은 사랑의 성금을 어린이재단(인천지부)에 전달했다. 지난 2012년도 한 해 동안, 원내 모금함을 활용해 모은 성금과 인하대병원 자체 후원금을 포함하여, 총 300여 만 원의 정성 어린 성금을 어린이재단에 전달하였다. 박승림 병원장은 "인하대병원과 어린이재단은 지난 2008년 상호협력 MOU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라며 "특히 아프리카 우간다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지역사회는 물론 지구촌 소외 계층과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2년도 협력의료기관 초청 세미나' 개최



인하대병원은 12월 6일, 인천 송도 웨라톤 호텔에서 협력의료기관의 병원장 및 진료과장 등 관계자들을 모시고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하대병원은 최근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에 따라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력방안과 네트워크 전략을 논의했으며, 함께 발전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심평원) 평가 '급성기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치료 잘하는 병원' 선정

인하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결과 '급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치료 잘하는 병원'에 선정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질이 높은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12년 가감 지급사업'을 진행하며, 급성기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을 놓고 각 189개, 113개의 의료기관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 인하대병원은 급성기 뇌졸중 부문 최상위 등급(1등급)과 급성심근경색증 부문 상위등급에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인하대병원은 급성기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 치료 부문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전국 상위에 랭크되며, 의료의 질을 국가로부터 검증 받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심평원) 평가 '대장암 치료 가장 잘하는 (1등급) 병원'에 선정

12월 28일, 인하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결과 '대장암 치료 가장 잘하는 (1등급) 병원'에 선정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대장암 수술 실적이 있는 275개 병원을 대상



으로 평가한 결과, 총점 90점 이상인 의료기관 44곳을 선정했다. 특히 인하대병원은 1등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타 의료기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항암 화학요법 시행률, 수술 후 8주 내 항암 화학요법 시행률', '직장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율'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보건복지부(심평원)로부터 대장암 치료 부문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 받았다. 이에 따라 인하대병원은 지난 5월에 심평원 평가결과 '3대암(대장암, 위암, 간암) 치료 1등급 선정에 이어 또 다시 인천지역 암 치료의 중심병원임을 확인했다.

장봉도 백내장 환자, 무료 수술로 밝은 빛 선물

12월 5일, 인하대병원과 인천공항세관은 장봉도 해림원에 거주하는 백내장 환자(오00씨 남/51세)에게 무료 수술로 세상의 밝은 빛을 선물했다. 9월 18일 인하대병원 봉사단과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장봉도 해림원을 직접 찾아 의료봉사를 실시하던 중, 안과 오중협 교수가 오00님의 눈 상태를 확인하고 백내장 수술 대상으로 선정하여 무료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랑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감동 전달



인하대병원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어린이병동(서8병동)에서는 박금수 진료부원장 등 임원진과 병동간호사들이 미리 준비한 '동화책'을 선물하며, 크리스마스 이브에 병동에서 지내고 있는 환아와 보호자들을 위로하였다.

인하대병원, 2012년도 자원봉사자 송년회

12월 24일, 인하대병원의 숨을 일꾼 '자원봉사자' 분들을 위하여 '2012년도 자원봉사자 송년회'가 열렸다. 박승림 의료원장 등 본원 임원진이 함께한 이번 송년회에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온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총과 노래가 함께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이브 파티가 열렸다.

인하대병원, 인천공항세관과 함께 장봉도 방문 '행복한 크리스마스 의료봉사' 실시



12월 21일,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은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도열)과 함께 장봉도해림원(인천시 옹진군 장봉도 소재)을 찾아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9월 18일에 이어 2번째 진행된 이번 봉사에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장봉도해림원에서 생활 중인 정신지체장애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이비인후과 진료 및 검진을 실시했으며, 인천공항세관 봉사단은 해림원

원생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빨감을 마련해주고 텃밭 퇴비 작업, 환경개선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비뇨기과 서준규 교수, VGX인터와 신약개발 위한 MOU 체결



인하대병원 성의학특성화센터는 지난 12월 21일 VGX인터와 신약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VGX인터는 인하대병원 성의학특성화센터와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VGX인터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 제조 및 전달기술을 개발하고 공동연구에 제공하며, 인하대병원 성의학특성화센터는 유전자 치료제를 포함한 신약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 연구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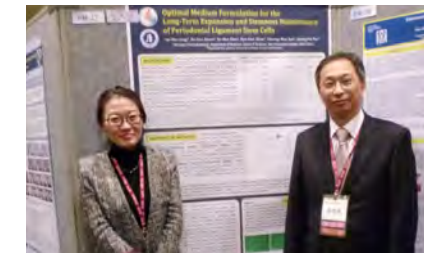
정형외과 문경호 교수팀, 대한고관절학회 학술상 수상



11월 16일,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문경호 교수팀(원만희, 이계왕, 이동주, 문경호)은 Journal of Arthroplasty, 26권에 발표한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Thromboembolism After Joint Arthroplasty Without Chemical Thromboprophylaxis in an Asian Population' 내용의 우수성과 고관절학 및 의학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대한고관절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치과 윤정호 교수팀,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 포스터 우수상 수상

11월 24일~25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2012년 제52회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치과학교실(치주과) 윤정호 교수 연구팀의 치주 인대줄기 세포에 관한 연구 논문 포스터가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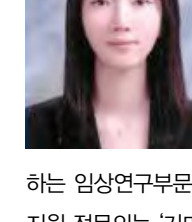
을 받았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치아에서 유래된 성체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이번 학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인하대, 연세대 치주과 공동연구팀, rhBMP-2 전달체에 관한 연구결과, SCI 논문게재



윤정호 교수(인하대병원 치주과, 교신저자), 조규성 교수(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김진우 대학원생(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박사과정, 제1저자)의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에 관한 공동연구 결과가 저명 SCI급 국제 학술지인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Part A에 최종 게재되었다(J Biomed Mater Res A, 2012 Dec; 100(12):3304-13).

피부과 변지원 전임의, '라로슈포제 아시아·태평양 피부과학재단' 임상연구부문상 수상



12월 18일 피부과 변지원 전문의가 '라로슈포제 아시아·태평양 피부과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임상연구부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변지원 전문의는 '기미 피부에서 섬유아세포 사이토카인의 발현 및 역할과 인공 피부에의 적용에 대한 연구'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금번 연구는 섬유아세포 기원 사이토카인을 인공피부에 적용한 첫 번째 임상연구로서 기존에 발표되었던 내용과 달리 섬유아세포가 기미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인하대병원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검진'

2010년부터 150개의원 218명의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인하대병원은 평소 국민보건발전을 위하여 진료현장에서 매진 하시느라 소홀하기 쉬운 원장님의 '건강 지킴이'가 되고저 2010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회에 원장님의 건강을 돌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하대병원은 지역 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장님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일 정** : 2013년 3월 17일(일요일) 08:00 ~ 13:00
- **대 상** : 원장님 및 배우자
- **혜 택** : 의료보험수가 적용 및 30% 감면 적용
- **신청기간** : 2013년 2월 18일 ~ 2월 28일
- **신청방법** : 전화예약(890-3500) 및 신청서 작성 후 FAX접수(890-3999)
- **문의사항** :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실(890-3500/3302) 이동열 과장

☝ 의료인을 위한 검진 항목 및 검사 해설

유형	구분	검진항목	검사해설	
기본	공통	Chest CT(others)	폐의 횡단면을 투과한 X선의 감약 정도의 차이를 2·3차원 영상을 재구성 해부학적 구조와 병변의 유무, 크기, 기능변화, 암전이 여부	
	공통	Abdomen + Pelvis CT(Contrast)	간질환, 담도계질환, 위장질환, 췌장질환, 비장질환	
	공통	Colonoscopy(Total, Colyte)	항문~충수돌기의 맹장 부위까지 내시경관을 삽입 대장용종, 장결핵, 대장암, 대장염, 크론씨병, 게실질환, 항문질환, 그 외 장염 등	
	공통	EGD	식도·위·십이장까지 내시경 관을 삽입 염증성질환, 출혈, 정맥류, 용종, 점막하근종, 궤양, 종양 등	
	공통	Sleeping EGD + Sleeping Colon		
선택	1	공통	Brain + Angio MRI GD	대뇌 및 소뇌의 해부학적, 선천성 기형, 염증, 뇌경색, 뇌출혈, 종괴, 낭종, 허혈성 질환, 치매 등
	2	공통	PET Torso(AD)	CT 영상을 밑그림으로 이용 그 위에 생화학적인 PET영상을 겹쳐 발견된 병변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3	여	Breast U/S(only)	고해상도 초음파 기기를 이용 섬유선종, 유방암, 농양, 낭종 등을 진단
	4	공통	Thyroid U/S	고해상도 초음파 기기를 이용 양성결절, 악성결절, 미만성 갑상선질환 등 진단
	5	공통	3D Angio Coronary CT	1초에 64개의 영상을 얻어 이를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 움직이는 심장에 대한 진단, 관상동맥, 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폐색전증 등의 진단
	6	공통	CBC(6종)	
	7	공통	Admission pannel(13종)	
	8	남	종양표지자(AFP, CEA, CA19-9, PSA)	
	9	여	종양표지자(AFP, CEA, CA19-9, CA125)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02/14(목), 03/13(수) 오후 2시 ~ 4시	3층 1 세미나실	여성암센터 (032)890-2560
대장암 환자 교육	대장암의 이해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3638

공개강좌 안내

강좌 일정	제목	강사	장소 및 문의
2013. 03. 27(수) - 오후 2시	소화기암(위암, 대장암, 간암)	소화기내과 신용운 교수	신세계아카데미 032-430-1501

●문의 : 교육수련부 ☎ 032-890-2641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단체 / 작가	장소
2013. 02. 02 ~ 2013. 02. 22	꽃의 대화 VIII	이남희	2층 갤러리
2013. 02. 23 ~ 2013. 03. 15	그림여행	그림여행	

●문의 : 홍보팀 ☎ 032-890-2608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화행사 안내

행사 일정	제목	참여 작가 / 연주자	장소
2013. 02. 04(월) - 오후 3시	환자 사랑 음악회	인하대학교 공대 교수팀	1층 로비

●문의 : 홍보팀 ☎ 032-890-2603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명*의

2012. 12. 01



출연 : 임종한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프로그램 : MBC
'경제매거진 M'
내용 : 인공조미료(MSG)의
유해성

2012. 12. 14



출연 : 김환철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프로그램 : KBS 소비자고발
내용 : 실내바닥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2012. 12. 17 - 23



출연 : 김명옥 교수/재활의학과
프로그램 : SBS 라디오
건강칼럼
내용 : 7가지 재활의학과 질환

2012. 12. 15



출연 : 우성일 교수/심장내과
프로그램 : 메디컬TV
'메디컬 뉴스'
내용 :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

2012. 12. 13



출연 : 박현선 교수/신경외과
프로그램 : MBN '건강솔루션'
내용 : 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

2012. 12. 22



출연 : 이연지 교수/가정의학과
프로그램 : KBS TV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 '햇살'의 진실

2013. 01. 01



출연 : 류정선 교수/폐암센터
프로그램 : KBS '생생정보통'
내용 : 폐암의 진단 및 예방

2013. 01. 09



출연 : 임종한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프로그램 : MBN
'생활의 재발견'
내용 : 화학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2013. 01. 05



출연 : 우성일 교수/심장내과
프로그램 : 경인방송
'라디오 종합병원'
내용 :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

2013. 01. 12



출연 : 박희권 교수/신경과
프로그램 : 경인방송
'라디오 종합병원'
내용 : 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

2013. 01. 19



출연 : 김창환 교수/재활의학과
프로그램 : 경인방송
'라디오 종합병원'
내용 : 심뇌혈관질환의
재활과 관리

파랑새 소식

유방암 환우 송년회

2012년 12월 21일, 주안 귀빈 웨딩홀에서 50명 정도의 유방암 환우 분과 가족분들이 모여서 즐겁고 뜻 깊은 송년파티를 가졌습니다. 노래와 춤 등 장기자랑을 뽐내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3년 계사년에는 더욱더 밝고 희망찬 인하대병원 파랑새가 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행사예정

- ▶ 파랑새 정기총회 (2월 중,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 일시 : 추후 공지 예정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 ▶ 홈페이지 www.inha.com > 여성암센터
- ▶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

인하대병원의

특별한 '내일' 을 만드는 가치기부

인하대병원 신관건립사업 - 국내 선도 특성화 센터

인하대병원 신관 건립사업은 초일류 의료기관의 표본을 제시하는 최첨단 병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국내 Top 7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동시에 더 나아가 인천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의료기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관은 중증·고령질환 전문병원 컨셉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특성화 전문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성화 전문센터에는 암센터, 심장·뇌·혈관센터, 류마티즘·관절센터 등을 배치하고, 최첨단 장비 도입 및 친환경 건축을 통하여 치유적 환경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시설개요

- 대지면적 : 약 5,467평
- 건축면적 : 약 2,000평
- 건물면적 : 약 26,000평
- 건축규모 : 지상 15층 지하4층
- 병상규모 : 약 600병상
- 준공예정 : 2016년 예정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 인하대병원을 사랑하고, 발전을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 * 개인, 단체 및 법인 명의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후원자께 정성을 다해 예우하겠습니다.

◆ 후원방법

- ① 약정서 작성 :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납부방법 : 일시납 혹은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입금 : 하나은행 748-910002-39804 (예금주: 인하대병원)
 - ▶ 자동이체(CMS) :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정기출금일: 15일, 25일).

▶ **급여공제(교직원에 한함)** :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납부** : 인하대병원 지하2층 행정지원실 내 발전기금팀

▶ **문의사항** : 궁금하신 내용은 발전기금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32)890-3390/3391 FAX : 032)890-3000 e-mail : inhadf@inha.com

인하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사무국